‘김포족’ 마음도 돌린다…속 꽉찬 해남절임배추 인기

올해 생산량 34만t 중 20% 절임배추 가공 판매
달고 아삭한 본연의 맛·쉽게 물러지지 않아 호평

해남 절임배추 생산 시설에서 2.5㎏이상 결구가 잘된 해남배추만을 사용해 국산 천일염과 깨끗한 물로 씻어 바로 김치를 담을 수 있는 절임배추를 손질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된 가운데 청정해남의 절임배추 인기가 상종가를 달리고 있다.

26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전국 배추 재배량의 26%를 차지하는 주산지로 해남절임배추가 김장 시장의 절대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절임배추는 김장을 준비할 때 가장 번거롭고 까다로운 과정으로 꼽히는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과정없이 바로 김치를 담을 수 있어 최근 김장 문화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김장의 규모가 소규모로 바뀌고 간략해짐에 따라 편리한 절임배추 시장으로 소비자들의 주문이 몰리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4천257ha 면적에서 배추를 재배하고 있다. 올해 생산량은 34만여t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중 20% 가량이 관내 업체에서 절임 배추로 가공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 절임배추는 지난해 관내 700여 농가에서 248만여박스(20㎏기준)를 판매, 930여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해남 북평면에서 절임배추를 판매하고 있는 김광수 농가는 “한번 절임배추를 사용해본 가정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편리함 때문에 반드시 김장에 절임배추를 사용하게 된다”며 “요즘 김장하는 방법을 몰라 김장을 포기한다는 김포족들이 많아진다는데 편리한 절임배추를 사용해 보면 절대 김장을 포기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해남절임배추의 인기는 원재료인 해남배추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매우 높은데서 출발하고 있다.

해남절임배추는 70-90일 이상 충분히 키워 2.5㎏ 이상 결구가 잘된 해남 배추만을 사용해 국산 천일염과 깨끗한 물로 위생적인 시설에서 만들어 3-4차례에 걸쳐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뺀 후 배달되므로 바로 김치를 담을 수 있다.

배추 속이 꽉 차고, 절임을 해도 달고 아삭한 배추 본연의 맛이 살아있어 김장을 담가 놓아도 쉽게 물러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배추 수확시기가 다소 늦어지면서 절임배추의 출하도 20일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속이 꽉찬 해남배추로 김장을 담그는 적기는 김치의 날인 11월22일부터 12월 초까지로, 수도권 김장 시기가 끝나면 남부지방의 김장철이 본격 시작되면서 해남배추의 인기는 초겨울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절임배추는 해남군 직영쇼핑몰 해남미소나 개별 농가 직거래 등으로 주문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배송일을 지정하면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전국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고품질 해남배추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절임배추의 인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해남배추의 높은 인기에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우려되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고, 생산기준 준수 등을 꼼꼼히 살펴 절임배추를 구입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남=박필용 기자

장세일 영광군수 “평생연금 조기 실현 약속”

‘함께 만드는 영광’ 6대 군정방향 제시…풍요로운 영광 실현
내년도 예산 7천15억 편성…경제·일자리·복지·안전 중점

장세일 영광군수가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군민’을 군정 비전으로 내세우며, 평생연금 조기 실현과 군정 혁신을 약속했다.

26일 영광군에 따르면 전날 장세일 군수는 제284회 영광군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발표했다. 〈사진〉

장 군수는 “2025년을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해로 삼고,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풍요로운 영광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영광군은 올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비 702억원과 특별교부세 16억원을 확보하며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합계출산율 5년 연속 전국 1위 기록,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의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 대마산단 복합문화센터 완공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또한 불갑산 상사화축제와 전남도체육대회 등 지역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

2025년 군정은 ▲민생경제 회복과 혁신산업 육성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구현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체험·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군민 중심의 소통행정 등 6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주요 핵심 과제로는 군민 기본소득 도입 준비, 재생에너지 기반 ‘햇빛바람 연금’ 지급 방안 마련, 청년 육아나눔터 개관, 농산물 가격보장제 확대, 백수 해안노을 관광지 조성 등이 포함됐다.

내년도 예산은 총 7천15억원으로, 일반회계 5천996억원과 특별회계 1천19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370억원 증가한 규모로, 경제와 일자리, 복지, 안전 등 핵심 분야에 집중 배분됐다.

장세일 군수는 “군민과 함께 군정 목표를 실현하며 영광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며 “군 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 행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광=김동규 기자

강진원 강진군수, 막바지 국비 확보 ‘총력’

강진만 생태공원 안전동선 확보 등 10건 재정 지원 요청

강진원 강진군수가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26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강진원 군수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강진군의 현안사업과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사진〉

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강진군의 대표 관광지로 떠오른 강진만 생태공원의 안전동선 확보 등의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난 여름 폭우로 침수됐던 아파트 주변 배수로 확장 등의 안전 강화를 위한 건의 사업들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이번 특별교부세 건의는 현안사업 4건, 재난안전사업 6건 등 총 10건으로 ▲강진만 생태공원 안전동선 및 저류지 구축(10억원) ▲다산박물관 주차장 정비(3억원) ▲강진읍 상습침수구역 개선사업(10억원) ▲도암면 논정지구 배수시설 설치공사(8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 및 관광 편의 증진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진군은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소통과 문금주 국회의원과의 협조 속에 중앙부처와 국회를 넘나들며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이전에 이미 2024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인근 시·군 보다 2억-9억원이 더 많은 17억원을 확보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강진읍 미급수구간 상수관로 신설 공사를 비롯해 만덕지구 배수시설 설치, 묘암제 보수공사 등이 추진되고 있다.

/강진=정영록 기자

왼쪽부터 미기록 어종 도미과 어류, 연어, 깃털제비활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제공〉

진도서 신규 어류 74종 발견…국내 미기록종 도미류도 나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221종 어류 서식 확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6일 “진도 전역을 대상으로 어류 종 다양성 현장 조사와 과거 학술 문헌 기록 검토를 통해 총 221종의 어류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섬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 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됐으며, 그 결과 기존 진도에서 기록되지 않았던 어류 74종을 새롭게 확인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진도 연안에서 국내 미기록 어종인 도미과 어류의 서식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 어류는 눈 사이의 노란색 무늬와 아가미뚜껑 위에 검은색의 커다란 반점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주로 지중해 지역에 분포하는 종이다.

후속으로 유입경로 및 분포 정보, 유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는 전문학술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원관은 이를 바탕으로 국가생물종목록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강열 도서생물연구본부장은 “섬과 연안 지역은 육상에 비해 비교적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어 생물자원이 매우 풍부하다”며 “앞으로도 섬 지역 생물자원의 분포 정보와 표본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미래 세대를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의 기초 자료를 축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1년부터 매년 섬 지역의 생물조사 발굴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생물자원이 풍부하지만, 접근이 어려워 연구가 미흡했던 섬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섬 지역의 독특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목포=정해선 기자

영암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첫 운행

영암군은 26일 “오는 12월부터 지역 내 첫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2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기저상버스는 영암-목포를 오가는 101번 노선에 투입돼 하루 28회 운영되며 주요 경유지는 군서면, 삼호면 등이다.

도입된 버스는 저상 구조에 휠체어 탑승 장치가 장착돼 있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나아가 소음과 매연이 적어 지역 교통환경도 개선하고, 전기 충전 방식이어서 화석연료보다 연료비도 절감 효과도 높아 무료 버스를 운영하는 영암군의 재정부담도 줄여줄 것으로 여겨진다.

영암군은 이달 시승식을 열고, 다양한 문제점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영암군은 이번 도입을 시작으로, 매년 1-2대씩을 추가해 20대의 전기저상버스를 확보할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부르면 달려가는 ‘콜버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무료 버스’로 이어온 대중교통 혁신을 전기저상버스로 이어가겠다”며 “환경과 재정 부담을 줄이는 전기저상버스를 애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오감 체험 운영

내달 8일까지…해변 노르딕워킹 등 프로그램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은 26일 “오는 12월8일까지 해양기후·문화치유센터 활성화를 위해 해양치유센터 이용객과 군민을 대상으로 해양치유 오감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은 ▲해변 싱잉볼 명상 ▲해변 노르딕워킹 ▲향기 교실 ▲공예 교실 ▲요리 교실 등이다.

프로그램은 해양치유센터 이용객, 지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기후치유 소인 6천원, 대인 1만원, 문화치유는 소인·대인 2만원이다.

참여 방법은 매주 목·금·토요일에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061-550-7631)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채빈 이사장은 “해양기후·문화치유 프로그램이 센터 이용객과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신안, 정원문화 기반 지역 활성화 비전 제시

‘지속가능 정원도시 포럼’ 성공적 마무리

신안군이 정원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 활성화의 비전을 제시했다.

26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자은도 라마다호텔에서 ‘지속가능 신안 정원도시 포럼’을 성료했다.

이번 포럼은 신안군의 정원도시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정원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가운데 정원·생태 전문가, 학계 인사, 정책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지방소멸 대응 및 정원도시 방안 모색’을 주제로 신안군이 지닌 독특한 생태·문화 경관을 활용한 정원도시 비전이 발표됐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원문화가 단순히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임을 강조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은 주민주도형 정원수 육묘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기른 묘목을 정원 조성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포럼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원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정원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안=양훈 기자